‘이해 왜곡’ 부터 바로잡아야 無知 치유

박태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6〉

무지의 일반적 특성은 ‘사실에 대한 이해의 왜곡’ 이다. 인간은 어느 상황,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이해의 공백상태’ 에 빠져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지(無知)’ 라는 말은, ‘지식이나 이해의 공백’ 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과 이해’ 를 의미한다. ‘오해’ ‘편견’ ‘선입견’ ‘독단’ ‘독선’ 등이 모두 무지의 양상인 이유이다. 무지는 ‘잘못된 이해’ 이므로 관점이나 견해를 바꾸는 것이 무지 치유의 핵심이다.

무지가 삶을 오염시키는 근원적 요인이며, 무지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 – 이것은 분명 인간 특유의 사태이다. 인간이 고도화시켜 온 사유/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관점 · 견해 · 논리의 수립능력’ 이나 ‘법칙적 · 논리적 포착능력’ , 즉 ‘이해능력’ 이다. 인간에게는 감성 · 감정의 현상도 ‘어떤 이해를 성립시키는데 기여하는 조건’ 이 된다. 예컨대 경이로움, 호감 같은 감정이 사물과 세계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발생시키는 조건이 되는가 하면, 혐오나 반감 같은 감정은 오해나 편견을 성립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 이해능력은, 희망과 절망의 면모를 모두 품고 있다. 지식 · 이해능력을 ‘어둠을 밝히는 이성의 빛’ 으로만 찬탄하는 것도 치우친 태도이고, 지식 · 이해능력의 해악성에 환멸을 느껴 지식 · 이해를 ‘해로운 분별’ 이라고만 경멸하는 것도 치우친 태도이다. 지식 · 이해능력의 해악성은 경멸이나 거부와 같은 퇴행적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써 그 그늘에서 탈출해야 한다.

붓다의 태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언어 · 논리 · 이해의 덫과 부작용을 지적하면서도 결코 언어 · 논리 · 이해의 능력을 포기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붓다의 시선은 상위 차원의 언어 · 논리 · 이해, 다시 말해 일종의 ‘메타(meta)적 언어 · 논리 · 이해의 능력’ 에 닿아 있다. 본질주의 · 실체주의에 입각한 언어 · 논리 · 이해를 비판할 수 있고, 비본질 · 비실체의 연기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차원 다른 새로운 이해 · 논리 · 언어의 능력을, 붓다는 성취하여 모범을 보여준다. 그는 ‘비(非)본질 · 비(非)실체인 존재와 세계를 읽어내는 이해’ 를 언어와 논리에 담아 펼쳐 놓는다.

붓다가 실존왜곡과 오염의 원점에서 무명의 무지를 지목하는 동시에, 명지(明知; 제대로 아는 것, 실재대로 아는 것, 있는 그대로 아는 것)를 통해 근원무지로부터의 자유(해탈)가 성취된다는 것을 밝힌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지닌 이중적 면모, 그 양가(兩價)적 의미를, 깊은 수준에서 드러낸 것이다.

인간 특유의 지식 · 이해능력에서 발생한 무지를 지식 · 이해능력의 자기향상을 통해 치유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도 용이하지도 않다. 지식 · 이해능력의 자기초월적 자기치유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이미 정착한 잘못된 지식 · 이해능력’ 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무지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인가? 논리적 이해, 법칙적 판단, 개념분석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온 인간이, 왜 아직도 ‘오해, 편견, 독단, 선입견, 독선’ 타령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왜 아직도 오해나 편견, 선입견에 쉽게 빠져들며, 또 그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인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 이라는 붓다의 말은 그 까닭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연기적 사유를 거부하는 인간
오해와 편견, 독단에 사로잡혀
현상은 고정불변 상태가 아니다

‘불변자아라는 환각이 발생 · 유지 · 발전하는 조건인과와 소멸하는 조건인과를 알지 못하기에’ , 다시 말해 연기적 사유를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어떤 관점이나 견해도 ‘조건적으로 성립하는 것’ 이라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오해 · 편견 · 독단 · 잘못된 선입견 · 부당한 독선을 쉽게 수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견해를 ‘조건적’ 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견해와 같은 정신현상, 낮과 밤 같은 물질현상 등, 모든 현상은 예외 없이 ‘조건 인과적’ 으로 발생 · 소멸한다. 그리고 그 원인 되는 조건들은, 선택 가능한 것이든 불가능한 것이든, 모두 가변적이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가변적 조건에 따른 잠정적 양태’ 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이나 물질 그 어떤 현상도 ‘무조건 · 고정불변 · 확정 · 절대’ 의 사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견해나 관점도 마찬가지다. 어떤 판단이나 평가는 반드시 특정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수립된다. 그 조건들이 얼마나 타당한가, 그리고 그 조건들과 견해 · 관점의 인과적 연결이 얼마나 적절한가에 따라, 견해나 관점의 타당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이나 타인의 견해를 ‘조건인과적’ 으로 이해하며, 견해의 성립조건이 부적절하거나 틀렸으면 적절하고 합당한 조건인과로 대체하여 견해를 수정한다.

부처님 제석굴 설법을 묘사한 부조. 부처님은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 연기적 사고를 강조했다.

반면, 무지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견해를 ‘무조건적’ 으로 이해하여, 이미 수립된 견해를 무흠결의 절대정답으로 확정하거나 절대오답으로 판정해 버리는 태도를 취한다. 그리하여 부적절한 조건인과에 의해 수립한 · 선입견일지라도, 자기 내지 자기집단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무조건 · 불변의 절대정답 · 절대오답’ 으로 확정하려는 태도를 선호하게 된다. 무지의 표현양상인 오해 · 편견 · 독단 · 선입견은 ‘조건적 이해능력’ 의 결핍에서 발생하는 동시에, 이미 수립된 오해 · 편견 · 독단 · 선입견들은 그 견해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여 그대로 유지시켜 간다. 다음과 같은 붓다의 연기적 언어시설은 이상의 논의를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던 왓지야마히따 장자에게 외도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장자여, ‘사문 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 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존자들이여, 세존께서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난행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는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시고 칭송해야 할 것은 칭송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비난해야 할 것을 비난하시고 칭송해야 할 것을 칭송하시면서 분석적으로 설하시는 분이지, 획일적으로 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왓지야마히따 장자는 외도들의 주장을 굴복시킨 후 붓다를 찾아가 외도들과 나눈 대화를 아뢰었다. 붓다는 장자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나는 모든 고행을 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고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소임을 실천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소임을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놓아버림을 놓아버려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놓아버림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결정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고행을 하여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쇠퇴하면, 그런 고행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고행을 하여 해로운 법들이 쇠퇴하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하면, 그런 고행은 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노자’ 의 〈도덕경〉에 있는 말씀이다. “아는 자는 말이 없고(知者無言)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言者不知).”

‘노자’ 의 〈도덕경〉이나 ‘장주’ 의 〈장자〉에는 심오한 정신세계가 있다. 막힘이 없는 자유로움이 있다.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다음에 옮기는 구절은 〈채근담〉에 있는 말씀이다.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 여니 한 글자도 없다. 항상 큰 광명이 가득할 뿐.’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는 구절을 불교 쪽으로 옮겨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달마대사가 그의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네 명의 제자를 불러 그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보라고 일렀다. 제일 먼저 ‘도부’ 라는 제자가 나서서 말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언어문제에 집착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버리지도 말아, 오루지 문자는 도를 깨닫는 도구로만 이용해야 될 줄 압니다.”

‘도부’ 의 말을 듣고 달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나의 피부를 얻었구나.”

두 번째는 ‘총지’ 라는 비구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 가 석가 이전의 부처님인 ‘아촉불’ 의 불국토를 한번 보고는 다시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총지’ 의 말을 듣고 달마가 말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세 번째는 ‘도육’ 이라는 제자가 나서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과 불, 그리고 공기와 흙의 사원소가 본래 텅 비어 있고 눈, 귀, 코, 입, 몸이 또한 항상하지 않아 나라고 하는 것도 실재(實在)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형태를 끊임없이 옮겨갈 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달마는 ‘도육’ 의 말을 듣고 조금은 만족한 듯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네 명의 끝자리에 서 있는 ‘혜가’ 는 차례가 되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그는 달마대사를 향해 합장으로 인사만 한차례 할 뿐 서 있는 자세로 말이 없었다. 달마는 즐거운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야말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달마나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 선불교의 초조(初祖)가 되고 말이 없이 서 있던 ‘혜가’ 는 달마로부터 인가 받아 선불교의 2조(二祖)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채근담〉에 있는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 여니 한 글자도 없다. 항상 큰 광명이 가득할 뿐’ 에 대해 언급할 차례이다. 먼저 육조 혜능 스님의 말씀부터 들어보자.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괴었으며, 밝기로는 해와 달 같고 어둡기는 칠통의 그믐밤과 같아서 항상 나의 움직임과 머묾 속에 작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크기로는 하늘과 같고 작기로는 바늘 하나 꽂을 곳이 없는 것, 밝기로는 태양과 같고 어둡기로는 칠통 속 같이 어두운 것, 천하를 다 삼켜도 도리어 남음이 있고 티끌 속에 들어가도 다 차지 않는 것, 이것은 종이와 활자로 된 책 속에는 찾아낼 수 없는 것, 그러나 종이와 글자는 없으나 펼쳐들면 큰 광명이 천하를 비추는 것, 이것은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도, 전해줄 수도 없는 것이다.

지혜는 책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마음 열림서 광명을 만날 수 있다

참지식의 큰 지혜는 책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열림에서 광명의 빛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선가(禪家)에서는 ‘이심전심(以心傳心)’ 이라는 말을 즐겨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할 뿐 진리의 열린 세계를 언어문자로는 표현할 수도 전해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이나 설법하셨던, 그 숱한 진리의 내용에 대해 열반에 드실 때, 나는 한 마디의 진리를 설한 바 없다고 하시는 것이다.

자, 이제 책이 아닌 책, 펼쳐 여니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이 가득한 책을 나와 당신이 펼쳐들 차례이다. 하여, 혜능 스님의 물음에 ‘예’ , 하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게.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